

순창쌀 제주학교급식용 선정

매주 1~2회씩 400여톤 친환경 '희망햇쌀' 3월부터 정식 공급

순창 친환경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학교급식용 쌀로 선정되면서 순창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순창 태이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쌀인 '희망햇쌀'이 3월부터 제주도 학교급식 쌀로 정식 공급된다고 밝혔다.



순창 친환경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학교급식용 쌀로 선정되면서 순창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매주 1~2회씩 올해 400여톤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순창 태이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은 지난해 400여톤 공급에 이은 두 번째 선정으로 공식적으로 순창친환경쌀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류심사는 물론 밥맛, 씹는 촉감, 쌀알 모양 등을 평가하는 품평회 등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순창 태이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쌀은 제주도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851개소 11만 3천여명의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공급된다.

순창 친환경쌀이 2년 연속 제주도 학교급식 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이영농법인 작목반 농가 모두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유기농법의 실천과 순창 급과지역 활동 때문에 자라 미질이 우수한 점

때문이다. 또 순창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도 단단히 한몫 거들었다.

군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10개 학교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도 진행한다. 또 벼 유통업체 물류비와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 6,000여만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확대, 유통소비활성화, 친환경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농업환경보전, 친환경과화영농실현 등 5개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55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태이영농조합법인의 제주도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 2년 연속 선정은 순창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철 기자

남원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확대 추진

품목별 지원 위해 20억8700만원 예산 확보

남원시에서는 쌀산업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 2017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벼 대신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품목을 제외한 타작물을 재배할 시 작목별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남원시의 타작물 재배 목표 면적은 614ha로 전년도 목표 면적 7,841ha 대비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을 위해 20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지원 대상은 2017년도 쌀 변동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에 1,000㎡ 이상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품목을 제외한 사료작물, 콩·팥 등 두류와 일반 쫓겨들작물을 비롯해 다년생작물 등 타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 해당 된다.

작목별 ha당 지원단가는 수단그라스 등 가축 조사료 사료작물은 400만원, 일반·쫓겨들작물은 340만원, 콩·팥 등 두류는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2016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17도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필지에 대해서는 ha당 품목군별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금년 10

월중에 개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현재 57농가에 32.1ha(조사료 16.3, 일반작물 11.6, 두류 4.2)를 신청 목표면적의 약 5%가 신청되었다고 밝히고, 쌀 생산능가, 축산능가, 쌀전업농, 품목별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희망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에 발 벗고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농산물의 안정 유통을 위해 품목별 해당 지역 농·축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품목별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고품질쌀 적정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예촌 문화향유 공간으로

동동동화축제 등 관광객 발길 사로잡아

남원예촌이 올 한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결로 더 한층 다가간다.

그 동안 남원예촌은 한옥체험관을 비롯해 예투원, 실개천, 예촌마당, 조깅내기념관 등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해 왔고,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 겨울(冬), 아이(童), 이야기(童話)를 테마로 '동동동화축제'를 개최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큰 호평 받았다.

또한 설원휴에는 '가족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테마로 설맞이 행사인 '도란도란 설래(來) 보시개'를 열어 의미와 재미를 함께 만끽시켜 인근 관광객을 찾던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제 남원예촌은 남원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려 한다. 한옥체험관은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설을 개방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요급할인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촌마당에서는 버스킹, 신관사 또부임행사, 전통헌례, 각종 행사 및 전시를 운영하고, 관서당에서는 서당체험, 전통놀이, 예절교육 등 우리문화의 의미를 살려나가게 된다.

황희초당에서는 황희의 청렴과 교훈을 듣는 이야기 할머니를 운영하며, 광한루 담장을 따라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광한루 동편 예투원에서 '자전거와 위로'를 4주마다 1일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치매센터, MOU 체결

남원시는(시장 이환주)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자원연계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을 관리하는 관내 14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1일 남원시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치매안심센터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치매환자 정보를 공유하여 치매치료 중단자 관리, 치매의심자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 치매이동상담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종사자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치매파트너 치매교육 선도기관 양성 등 남원시치매안심센터와 공동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치매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치매 걱정없고 노년이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자인 약 3만 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마다 1일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순창=이양철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실시

임실군의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이 올해 첫 문을 연 봉황인재학당을 찾았다.

21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대한결핵관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봉황인재학당을 방문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봉황인재학당 주차장에서는 재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한 흉부X선 촬영 등 검진활동을 벌였다.

군 보건의료원은 재8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집단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진기관인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협력체계를 이월 2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취약지를 순회해 취약

지 주민과 봉황인재학당 학생 등을 비롯하여 5개 대성기관 700여명을 대상으로 X-선 장비가 장착된 이동검진 차량으로 흉부X-선 검사 유증상자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검진결과 발견되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등록 및 무료진료 등 치료를 병행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가지 생활수칙을 생활화해야 되고 예방수칙에 따라 2주 이상 기침할때 결핵검진, 올바른 기침예절, 꾸준한 운동, 균형있는 영양섭취, 환기시키기 등을 당부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군 정보화 농업인 육성 나서

임실군이 스마트폰을 통한 농가홍보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전략, 블로그 운영, 오픈마켓 활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